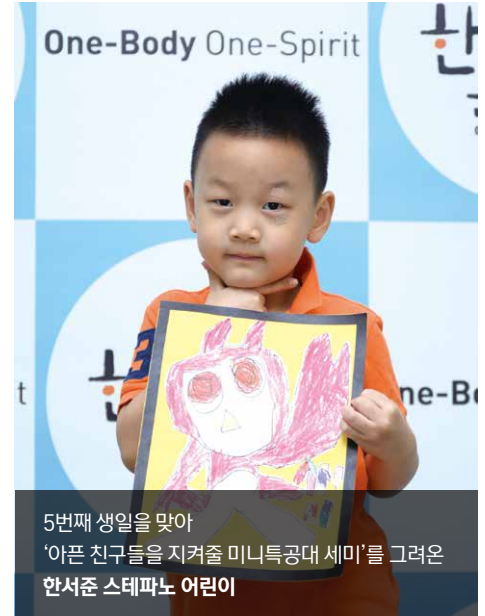


‘5년 전 본부를 찾은 한 살 서준이는 말도 못하는 아기였는데, 5번째 생일을 맞아 기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이가 “아픈 친구들이 내 그림을 보고 빨리 낫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준이가 그린 그림은 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미니특공대 세미’입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서준이의 친구들이 서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 빨리 쾌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생애 첫 기부’에 참여하신 서준이 아빠의 편지 중



5번째 생일을 맞아
‘아픈 친구들을 지켜줄 미니특공대 세미’를 그려온
한서준 스테파노 어린이

“미니특공대 세미가 아픈 친구들을 지켜 줄 거예요!!”

5번째 생일을 맞아 본부를 찾은 서준이가 직접 그려온 그림을 내보이며 아픈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부모님의 손으로 나눔에 참여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아픈 친구들을 위한 그림을 직접 그려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눔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2008년 본부로 전해온 돌 반지에서 싹튼 나눔이 기적처럼 커져서 벌써 2,200여 아기 가족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설레는 일입니다. 이처럼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생애첫기부’ 함께 해요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생애첫기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아시아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본부 사무실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기념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선물과 감사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 생애첫기부 신청문의 | 02.727.2267

★ 후원안내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우리은행 1005-684-077777**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통해서 얻은 이웃 사랑



상명대학교 가톨릭학생회 루시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서울대교구 대학생사목부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 및 한국가톨릭대학생연합회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학교 캠퍼스에서 생명의 나눔운동인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까지 상명대학교 '루시아'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 97명의 학생이 캠페인 봉사자로 참여하여, 총 940여 명에 이르는 젊은 학생들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처음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일정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행사를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학생복지팀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를 잡고,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조혈모세포에 대해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캠페인이 정말 뜻 깊은 일'이라는 생각과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교 곳곳에 캠페인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많은 학우가 이 캠페인에 함께 하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행사 당일엔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조혈모세포 기증 참여를 안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학우들에게 다가가자 다른 회원들도 다 함께 힘을 내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캠페인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들을 대할 때는 다소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캠페인 취지에 공감

하며 긍정적으로 동참하는 친구들이 많아 총 84명의 학우들이 이날 조혈모세포기증희망캠페인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많고 겁먹고 있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각박해지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졌다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준비는 매우 힘들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백혈병과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학우가 참여해줘서 뿌듯했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이 모여 환우 분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증자 역시 기증의 보람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명대학교 가톨릭학생회 루시아
회장 이다교 데레사(경영, 13학번)



★ 가톨릭생명나눔센터 | 1599-3042

- 조혈모세포기증 신청 상담
- 장기기증 신청 및 상담

★ 장소 | 1898 명동대성당

※ 캠페인 문의 | 02.727.226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당 및 기관, 단체에서 요청시 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장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자살유가족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냈나요?

소중한 사람을 사별로 잃어버린 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사회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슬픔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선에서 점진적인 사회참여와 자신의 상실로부터 치유받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바라기 슬픔돌봄 피정’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며 위로받고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하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살유가족을 위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해바라기 슬픔돌봄 피정’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며 위로받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큰 충격으로 인한 슬픔이 고통스러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큰 아픔의 상실 이후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사66,13)

- ★ **참여대상** 가족을 자살로 잃은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 **언제** 2015년 9월 2일 ~ 3일 (1박2일)
- ★ **어디서** 피정의 집(서울), 참여 확정시 개별 안내
- ★ **신청** 2015년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명 마감)
- ★ **참가비** 무료
- ★ **문의 및 신청** 02. 2265. 2952 (월~금, 10시~17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www.3079.or.kr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상실을 나누고 위로와 지지를 얻는 개인상담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1회 50분), 상담비 무료)도 가능합니다.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생애첫기부 고명원 2014.07.15생 父 고성진 母 백지예 고예은 2015.05.08생 父 고갑진 母 황선경 권나희 2014.06.14생 父 권혁민 母 최영주 김라온 2014.06.18생 父 김동환 母 최수진 김목하 2014.05.25생 父 김희명 母 강민주 김선우 2015.04.03생 父 김도현 母 문수아 김솔 프랜시스 2014.06.01생 父 김지성 母 백유진 김시원 요셉 2015.03.18생 父 김민우 母 진민정 김예나 2014.05.31생 父 김선규 母 김민희 김태재 2015.03.01생 父 김영록 母 한혜원 김해은 바오로 2014.06.30생 父 김성훈 母 황하나 나예원 안젤라 2014.06.26생 父 나지훈 母 정지영 박단빈 스테파노 2014.06.18생 父 박병철 母 김미영 서수혁 프란치스코 2014.06.30생 父 서동삼 母 이정은 안서준 루카 2014.06.27생 父 안재범 母 임창주 오수아 2014.06.24생 父 오덕교 母 유나연 오예람 2015.03.10생 父 오용하 母 전해연 오예솔 로사리아 2014.07.21생 父 오경태 母 이정예 유호연 2015.01.16생 父 유동선 母 이은선 윤여강 2014.07.03생 父 윤석문 母 김은희 이다현 아셀라 2014.08.11생 父 이성윤 母 박해미 이도준 프란치스코 2014.03.13생 父 이민채 母 이수현 이셋별 2014.06.24생 父 이승준 母 허성자 이승재,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2014.05.29생 父 이상현 母 김지연 이예은 베로니카 2014.07.12생 父 이기성 母 지은주 이현준 2014.06.20생 父 이원희 母 변은영 장재범 2015.03.25생 父 장계성 母 하윤주 정다빛 다비드 2014.07.16생 父 정세영 母 이지연 조유진 2014.07.03생 父 조기동 母 김해정 조현지 소피아 2013.09.17생 父 조영준 母 심주영 채서연 2014.05.18생 父 채운 母 정해민 천시우 여호수아 2014.06.24생 父 천성민 母 김민지 최민준 2011.06.17생 父 최창환 母 최윤미 표하준 베드로 2014.06.25생 父 표성운 母 김경숙 하정후 라파엘 2014.06.20생 父 하인덕 母 최원선 한수호 2014.08.26생 父 한승훈 母 김미란 한우택 솔로몬 2015.03.17생 父 한중석 母 이정은

두번째 기부 김시준 안드레아 2014.04.15생 父 김정호 母 이주선 손채운 스텔라 2013.06.16생 父 손승현 母 공성주 엄정훈 2013.06.19생 父 엄준용 母 박은정 유수환 스테파노 2011.06.17생 父 윤장희 母 안정아 윤주미 마리아 2013.06.12생 父 윤준근 母 이유정 윤진우 라파엘 2013.05.28생 父 윤승배 母 최문형 윤예림 마리아 2013.06.04생 父 윤형준 母 양선영 이도현 대건 안드레아 2012.07.05생 祖母 백종순 이리원 2014.05.14생 父 이민우 母 하윤선 조현우 요한 2009.09.20생 父 조영준 母 심주영

세번째 기부 김시은 바울리나 2012.06.22생 父 김충일 母 이주희 김요한 세레자 요한 2007.06.18생 父 김건수 母 백미영 김이수 소피아 2013.01.29생 父 김도현 母 문수아 박신우 바르나바 2013.01.11생 父 박영준 母 안영현 박은우 안셀모 2010.04.22생 父 박영준 母 안영현 서민지 마리스텔라 2012.07.17생 父 서영부 母 이정은 윤해정 엔다 2012.03.08생 父 윤형준 母 양선영 이수현 프란체스카 2013.07.22생 父 이정원 母 이상민 이승수 스테파노 반델리 2012.06.13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네번째 기부 김하윤 요안나 2011.06.07생 父 김진만 母 성영실 이수인 베로니카 2009.06.28생 父 이정원 母 이상민

다섯번째 기부 김성윤 2012.06.27생 父 김주환 母 유효빈 김예윤 2012.06.27생 父 김주환 母 유효빈 조서현 베드로 2010.06.19생 父 조낙기 母 조선미

생일 기부 양경오 1976.05.05생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김치현 & 김수경 마가렛 결혼1주년 흥인재 & 전초연 결혼1주년

★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한가족 장학회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에 열의가 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참 오래전부터 안타까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그런 열의와 안타까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20년간 본당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족 장학회는 2015년 107명의 학생들에게 원원과 지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나눔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신청 및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팀 02 776 8810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가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목)에는 단종독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중독으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exodus"를 주제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미사가 명동성당에서 진행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30일(목), 19시

장소 | 명동성당

주제 | "중독으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exodus"

주최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 단종독사목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나눔기업 신청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162호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법무사 김병현사무소

163호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정치과

164호점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로특종합상사

165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세진약국

166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황가네화물냉면

167호점 서울 송파구 석촌동 웰메이드 송파직영점

168호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민들레

169호점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파크로스터

170호점 광주 동구 중앙로 트라이 광주중앙점

171호점 서울 양천구 신월3동 교소

172호점 인천 옹진군 영흥남로 삼봉 푸줏간 정육점식당

173호점 경남 하동군 악양면 그림동

174호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주)테르소프

175호점 서울 은평구 녹번동 뉴하이퍼

176호점 제주 서귀포시 신양로 시베리아굴&3시별장

177호점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꿈꾸는 갈비탕

178호점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한양어린이집

179호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탕이랑막회랑

180호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이물도 사람들

181호점 서울 양천구 신월로 아동청소년발달심리상담센터 믿음

182호점 충남 논산 강경읍 금백로 성모약국

183호점 서울 광진구 구의동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184호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예원윤앤송환의원

185호점 서울 송파구 풍성로 동서울신발

186호점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두리두리호프

187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로 온누리자혜약국

188호점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주)인테스

189호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에디타 김

190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로 리트머스 개봉점

191호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조은내과의원

192호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파티C&M

193호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유)프리마모터스

194호점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향구탐자냉동

※ 기준: 2014. 9 ~ 2015. 7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 현재 약 16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 727 2263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100

52,335명

2015.7.2 현재

★ 자동이체신청 | 02 774 3488

★ 지로 | 7522277

★ 후원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 454-005324-13-001

신한은행 | 140-001-982286

국민은행 | 083-01-0309-453

★ 인터넷참여 | www.obos.or.kr

★ ARS | 060 700 1117

회환은행 | 061-22-03709-4

하나은행 | 850-910006-09104

농협 | 386-01-015833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문의 | 1599 3042(생명살이)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oboscorea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